“그 소식, 어디서 봤죠?” 회의에서 원문을 엽니다.

경쟁사 59곳의 소식을 5개 언어권에서 모아
영업팀이 발표 원문까지 열어보게 했습니다.

주간 보고서에 남기는 것	읽는 순서
회사와 주제	어느 회사가 무엇을 발표했나
새 소식	같은 발표를 옮긴 기사는 하나로 묶기
발표 원문	회의 중에도 최초 발표와 기록 다시 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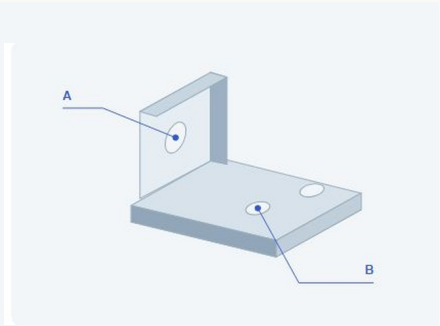
2026년 7월부터 운영

납품 형태는 회사별 대시보드와 주간 리포트입니다.

운영자가 공개한 프로젝트 원문 보기 ↗

구매담당자가 이 한 장을 팀장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?

제품 하나를 두고 설계·구매·품질이 묻는 말을
한 그림 옆에 모았습니다.



TAKTO 제품 페이지 발췌

설계
우리 장비에 맞을까?

구매
수량과 일정은 맞을까?

품질
어떤 증빙이 필요할까?

제품 페이지 · 기술 글 · 6쪽 소개서

같은 제품을 세 가지 형식으로 만든 공개 제작 견본입니다.

제품 페이지와 6쪽 소개서 함께 보기 ↗

문의 버튼을 눌렀는데, 담당자는 받았을까요?

거래처가 제품을 찾고 견적을 보낼 때까지
시험 문의 한 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갑니다.

검색 결과	제품명을 치면 맞는 회사가 뜨나요?
제품 페이지	휴대폰에서 해당 제품이 바로 열리나요?
문의 접수	보낸 뒤 접수 기록이 남나요?
담당자 수신	같은 시험 문의가 담당자에게 도착했나요?

우리 회사라면 어디에서 막힐까요?

제품 하나와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.